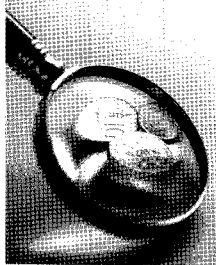




산업동향 www.kcca.or.kr



- 은행 대형화되면 中企대출 감소할수도
- 2010년 6월 경기전망 조사결과
- 상시신용평가도입 매년 中企 구조조정
- 불황 속 中企, R&D투자는 활발
- 올해 中企 정보화지원사업 총 239개사 선정
- 中企 정책자금, 고용창출 효과 커
- 우리 수출 가는 길에 거칠 것 없다
- OECD "한국 경기확장 2011년까지 계속될 것" 빠른 성장세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안정세 지속'
- OECD "올해 한국경제 5.8% 성장"…1.4%p 올려잡아
- 한국, 국가경쟁력 23위..일본 누르고 역대 최고 순위 기록

은행 대형화되면 중소기업 대출 감소할수도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대출담당자들의 구조조정과 이직을 유발해 중기대출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대형화의 장·단점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은행간 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역에 대한 구조조정과 이직 등을 유발한다"며 "기존 중소기업과의 관계금융이 끊어져 중기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과의 오랜 관계에서 축적한 기업의 내부정보에 바탕을 둔 관계대출에 주로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형화가 독과점 피해와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 위원은 "대형은행의 부실화는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감독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할 유인이 생긴다"며 "대형은행은 자산·부채·영업행태 등이 복잡해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67%에 이르러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시장에 안주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6월 경기전망 조사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체 1,41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6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101.4)대비 3.3p 하락한 98.1을 기록해 지난 1월 이후(90.7) 상승세를 지속하다 6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불안요인과 민간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는 지난 3월이후 계속하여 기준치 100를 넘었으나 6월은 98.1로 4개월 만에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한 것이다.

▣ 부문별로는 모두 하락했으나, 중기업, 혁신형제조업, 중화학공업은 여전히 기준치(100) 이상

•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98.5→95.3), 중기업(107.6→104.3) 모두 하락하였으나, 중기업은 4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 공업구조별로도 경공업(96.8→94.3)과 중화학공업(105.5→101.6) 모두 하락하였으나, 중화학공업은 계속하여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하였다.

• 기업유형별도 일반제조업(98.8→96.2)과 혁신형제조업(111.2→105.6)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업종별로도 대부분 하락

• 업종별로는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85.7→70.4)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9.3→97.1), 종이 및 종이제품(101.5→93.5) 등 18개 업종에서 하락하였으며, 가죽·가방 및 신발(90.5→96.9)과 식료품(94.2→96.8) 등 4개 업종은 다소 상승하였다.

▣ 생산, 내수판매 등 대부분 항목에서 하락했으나, 수출은 소폭 상승

•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생산(102.6→99.6), 내수판매(100.8→98.0) 경상이익(94.1→92.7), 자금사정(92.9→91.9)은 소폭 하락했고, 원자재조달사정(90.3→90.4)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수출(99.3→100.5)은 소폭 상승했다.

• 수준판단 항목인 생산설비수준(99.8)과 제품재고수준(98.8)은 모두 기준치(100) 미만 수준으로 다소 부족할 전망이다고, 고용수준(91.8)은 기준치 미만 수준을 지속해 인력부족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5월 중소제조업 업황실적 4개월 연속 상승

• 한편, 5월 중소제조업 업황실적은 전월(92.3)대비 1.3p 상승한 95.6을 기록해 지난 2월(84.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91.0→92.0), 중기업(101.6→103.4) 모두 상승했으며,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91.9→94.6)은 상승한 반면 혁신형제조업(103.8→99.3)은 하락하였다.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93.0→10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77.6→83.7), 의복, 의복액세서리및포피제품(93.6→99.3)등

의 업종에서 상승하였다.

▣ 경영애로 원인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 2010년 5월 중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는 “원자재가격상승”(62.3%)으로, '08. 10월(65.1%) 이래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이어서, “내수부진”(47.2%) “업체간 과당경쟁”(37.4%), “판매대금회수지연”(31.6%), “인건비상승”(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원자재가격상승”(59.4%→62.3%), “원자재구독난”(15.4%→17.4%) 등의 애로비율은 증가했으나, “내수부진”(49.3%→47.2%) “제품단가하락”(22.2%→20.7%) 등의 애로비율은 감소했다.

상시신용평가도입 매년 中企 구조조정

채권은행들이 매년 7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기업회생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은행들은 매년 중소기업 신용위험에 대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을 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5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은행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7월에 이뤄진다. 수시평가는 5월, 8월, 11월, 2월 말

등에 이뤄지며 평가 대상은 매 분기 말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은행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세부평가는 기본평가 후 3개월(수시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외부감사의무화 대상 기업과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분해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체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미만인 법인과 개별 은행 신용공여가 3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때 적용된다. 채권은행들은 내달부터 해당기준을 잣대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황 속 中企, R&D투자는 활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제조업기준)을 '07년 4.15%에서 '08년 4.38%로 늘린 것(0.23%p ↑)으로 나타났다.

*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07년 9.24%에서 '08년 9.74%로 0.5%p 상승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25,365개를 대상으로 3,400개 기업(중소제조업 2,778개, 중소기업서

비스업 622개)을 표본 조사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기술개발활동,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투자,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기술개발성과, 기술개발 애로요인 등이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평균 업력은 11.7년, 평균 매출액은 87.2억원, 평균 종사자수는 31.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장·성숙기 단계의 기업들이 8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업종은 '기계 및 장비업'이 21.2%로 가장 많았다.

* 시장진입기(12.7%), 성장기(55.1%), 성숙기(28.4%), 구조조정기(3.9%)

중소제조업체는 자사의 기술능력수준을 세계최고대비* 평균 74.7%로 평가하고 있으며, 요소별로는 제조(가공)능력(77.2%) 및 생산관리능력(76.3%)을 높이 평가했다.

* 세계최고대비 기술능력수준(%) : 아래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자체 판단한 것으로 절대값이 등간척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 100% 수준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시장에서는 독보적인 기술 : 80% 수준
- 세계시장에서 일반적이나 국내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 : 60% 수준
-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 : 50% 수준 미만

반면, 디자인능력(72.6%)과 제품(상품) 기획능력(73.2%)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디자인 능력	제품(상품) 기획능력	시험검사 능력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	신기술(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설계 능력	생산관리 능력	제조(가공) 능력	전체
72.6	73.2	73.2	73.8	73.9	76.2	76.3	77.2	74.7

특히, 디자인능력은 신성장·녹색기술 등 국가육성 전략분야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의 기술개발을 시도하여 3.5건이 성공하고, 사업화 성공률은 39.4%로 2.3건이 성공했다. 기술개발의 성공요인으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37.0%), 기

구 분	디자인 능력	제품(상품) 기획능력	시험검사 능력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	신기술(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설계 능력	생산관리 능력	제조(가공) 능력	전체
제조업 전체	72.6	73.2	73.2	73.8	73.9	76.3	76.2	77.2	74.7
신성장기술기업	70.5	72.0	72.9	75.1	72.8	77.5	76.3	78.4	77.2
녹색기술기업	65.4	67.7	69.6	71.3	69.8	75.0	73.8	74.5	74.6
제조기반기술기업	67.8	68.6	68.3	69.7	68.9	73.8	72.3	75.6	72.9

- * 신성장기술기업: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 IT융합, 로봇, 신소재/나노, 바이오, SAW 등 183개
- * 녹색기술기업: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제고 분야 등 117개
- * 제조기반기술기업: 주물, 금형, 열처리, 용접, 소성, 도금 등 430개

기업당 평균 9.4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획부터 제품화(사업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6.8개월 정도이나, 외부에서 모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 이내가 58.2%를 차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 기획단계(4.6개월), 개발단계(7.1개월), 사업화단계(5.1개월)

중소제조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07년 4.15%에서 '08년 4.38%로 증가(0.23%p ↑)하였으며, 기술개발비 조달은 자체조달(88.9%)이 가장 많고 정부출연금(7.4%), 정부융자금(1.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성공률은 59.3%로 5.9건

슬개발경험(15.2%), 인적자원(13.3%) 순이며 실패 요인으로는 기술개발 자금부족(36.2%), 경제여건변화로 개발필요성 저하(20.9%), 기술개발 인력부족(19.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애로요인으로는 역시 기술개발자금 부족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24.4%), 연구설비 및 기자재 부족(16.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8.8%로 나타났으며, 그 중 박사가 15.5%, 석사가 12.1%로 고급인력일수록 부족현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경우

디자인 능력	제품(상품) 기획능력	시험검사 능력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	신기술(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설계 능력	생산관리 능력	제조(가공) 능력	전체
71.9	73.3	74.2	74.9	74.5	75.3	75.3	75.8	74.5

에는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차이점이 있었다. 제조업에 비해 평균 업력은 3.1년이 짧고, 매출액은 절반수준, 종사자수는 3명 정도 적었다.

* 평균업력 8.6년, 평균매출액 43,37억, 평균종사자수 28.7명

중소기업서비스업체는 자사의 기술능력수준을 평균 74.5%로 평가하고 있으며, 요소별로는 신기술 개발능력(75.8) 및 제조(가공)능력(75.3%)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디자인능력(71.9%)과 제품(상품) 기획능력(73.3%)은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공동·위탁기술개발 파트너로 제조업이 대학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과 달리, 기업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 중소기업(49.3%), 대학(39.4%)

기업부설연구소(63.0%), 전담부서(27.9%)로 90.9%가 기술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하여 제조업 62.2%에 비해 30% 가까이 높았다. 또한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08년 기준 9.74%로 제조업 4.3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기술통계조사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여 연구기관, 학계,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기술정책과 김원수(042-481-4582)

올해 中企 정보화지원사업 총 239개사 선정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정보화 전문 인력 및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2010년 정보화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구축에 들어간다.

본 사업은 '10년 총 164억원의 예산으로, 1월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장평가와 타당성조사(선택), 그리고 심사평가를 거쳐 총 239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 중소기업의 그룹웨어, ERP 등을 구축·지원하는 IT 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90개사

* 생산현장의 POP, MES 등을 구축·지원하는 생산 현장디지털화사업 144개사

* 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한 공동네트워크구축사업 5개 컨소시엄

또한, 선정된 중소기업은 5월 협약·착수를 시작으로 최대 6개월의 사업기간동안 총 사업비용의 50%이내(최고 6천만원, 공동네트워크구축사업은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 및

중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화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격차를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이 3년 연속 상승하는데 일조했으며, 실제 생산 및 경영 현장에서 매출액 증대,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가지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대기업 대비 정보화수준

- ('07)70.7% → ('08)76.3% → ('09)76.7%('09 정보화 수준조사, 기정원)

이러한 이유로 동 사업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고 지원방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증가하였으며, 올해엔 10:1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 최근 3년 평균 경쟁률(7:1) 상승 : 07년(4.7:1) → 08년(5:1) → 09년(6:1) → 10년(10:1)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의 참여열기가 대단한 만큼 차년도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생산현장의 IT융합 지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정책목적을 두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술협력과 김종대(042-481-4400)

중소 정책자금, 고용창출 효과 커

“일자리창출”이 금년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기업이 '09년 39,300명(실적), '10년 44,500명(계획) 등 2년간 8만4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이 우량기업보다는 재무나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09년 정책자금 이용기업(12,247개사)중 이용 전후 3개년('08년~'10년)의 고용실적 및 고용계획을 모두 응답한 5,78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 :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29일간 중공 지역본(지부)에서 실시

업체당 평균 고용증가인원은 '09년 실적 3.2명, '10년 계획 3.6명으로, 전년도대비 각각 11.4%, 11.6%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기업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실적:(평균고용증가인원)3.21명('08년28.11명→'09년31.32명),(증가율) 11.4%

* '10년계획:(평균고용증가인원)3.64명('09년31.32명→'10년34.96명),(증가율) 11.6%

고용증가율 11%는 중소기업 평균고용증가율 1.1%(사업체기초통계조사, '08년 기준) 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책자금이 고용창출에 매우 큰 기여하며, 또한 '09년도 39,300개의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9,231억원의 소득금액과 156억원의 세수증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정책자금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신규고용인원(39,330명) : 평균 고용증가인원(3.21명) × 지원업체(12,247개)
- * 소득금액 증가(9,231억원) : 신규고용인원(39,330명) × 중소기업 평균급여(23.5백만원)
- * 세수증가분(156억원) : 신규고용인원(39,330명) × 1인당 평균납부세액(398천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자금 종류별·지원 유형별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금·용도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자금 지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운전자금 지원기업 대비 5%p 높게 나타났다.

- * 평균 고용증가율(% , '09실적, '10계획)
 - 자금종류 : (창업지원)33.5 ↑, 20.9 ↑, (개발기술사업화)5.6 ↑, 12.2 ↑, (신성장기반) 7.9 ↑, 8.4 ↑
 - 자금용도 : (시설자금)15.6 ↑, 12.7 ↑ (운전자금)10.6 ↑, 11.2 ↑

(업력·규모별)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기업규모면에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 * 평균 고용증가율(% , '09실적, '10계획)
 - 업력별 : (3년 미만)49.3 ↑, 22.8 ↑ (7년 미만)10.8 ↑, 14.8 ↑ (7년 이상)5.7 ↑, 9.0 ↑
 - 종업원 : (20인 미만)25.2 ↑, 22.5 ↑ (50인 미만)7.4 ↑, 10.7 ↑ (100인미만)7.5 ↑, 5.5 ↑
 - 매출액 : (20억 미만)21.1 ↑, 24.4 ↑ (50억 미만)12.9 ↑, 10.2 ↑ (100억미만)11.6 ↑, 9.5 ↑

(업종별) 제조업보다는 지식서비스 등 비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 * 평균고용증가율(% , '09실적, '10계획) : (제조업)10.9 ↑, 11.4 ↑ (비제조업)15.4 ↑, 13.1 ↑

이번 분석결과는 정책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창업초기기업 및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확산에 따라 시설자금 용도의 자금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년 정책자금 기초를 '09년 유동성위기 극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변경하고, 시설자금 비중을 확대('09년 38% → '10년 60%)하는 한편, 평가체계를 기술사업성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을 신설('10년 2,500억원)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업체의 성과과약을 위한 실시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정책자금 운영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업금융과 이정훈주무관(042-481-4375)

우리 수출 가는 길에 거칠 것 없다

“월 수출, 전년 동월대비 42% 증가…무역수지는 43.7억 달러 흑자”

남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하며 3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6월 1일,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한 394억 9천만 달러, 수입은 50.0% 늘어난 351억 2천만 달러로 이달 무역수지는 43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70.2%, 자동차부품 87.3%, 반도체 81.0%, 액정디바이스 36.8%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29.2%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2% 증가했고 석유제품(61.0%)과 가스(123.0%)·석탄(34.7%)도 늘었다. 자본재 및 소비재 역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6.5%나 늘었다.

지식경제부는 월평균 물량이나 금액 면에서 수출입 모두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탈피했다고 분석했다.

OECD “한국 경기확장 2011년까지 계속될 것” 빠른 성장세 … 기준금리 점진적 정상화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확장 기조가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서서히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OECD 한국과 일본 책임자인 랜들 존슨 박사는 15일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5.8%, 내년에는 4.7%를 기록할 것이며 두 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1.1%, 내년은 12.6%로 예상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출이 2010년 들어 감축추세에 있어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준금리는 1년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적 성장 위해 노동참가율·생산성 높여야”

OECD는 중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8년까지 OECD 선진국들의 2/3 수준으로 상승한 것에는 노동투입이 이례적

으로 많았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8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랜들 박사는 오는 2020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특히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데, 특히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58%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비율(FDI)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들 박사는 FDI 확대는 서비스산업의 민간 부문 연구개발(R&D)을 늘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늘어가는 사회...건강한 고령화 고민할 때”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관련,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는 입원기간 축소, 포괄수가제도로의 변경 등을 통해 의료부문의 지출을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담배세는 낮은 수준이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할 것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비용 충당을 위해 의료비 재원 마련 부분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한국의 경우 젊은층의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임금근로자에게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간접세를 통해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랜들 박사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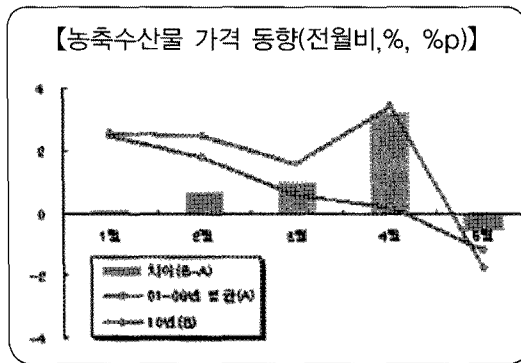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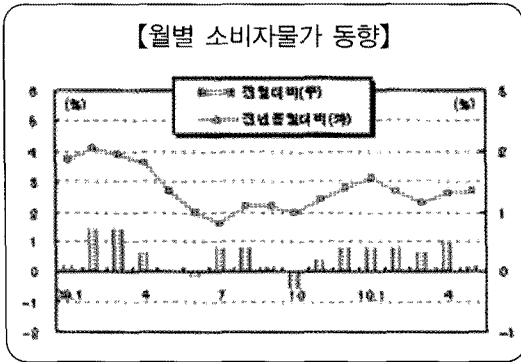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며 신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02-2150-2736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안정세 지속’**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를 지속했다. 전월보다는 0.1% 상승해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일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근원물가도 하향안정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2.7% 상승했으며 전월대비로는 0.1% 올랐다.



연초부터 강세를 이어오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석유류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면서 전월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남부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 금값이 상승해 금반지 등 일부 공업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

가의 추가적 안정세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업제품 가격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고 서비스요금은 안정세를 지속했다.

농축수산물은 5월들어 기후여건이 개선되고 봄상품 출하가 시작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산물 가격도 기후여건 개선으로 출어가 늘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공업제품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의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타 공업제품은 금반지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개인서비스 요금도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로 안정세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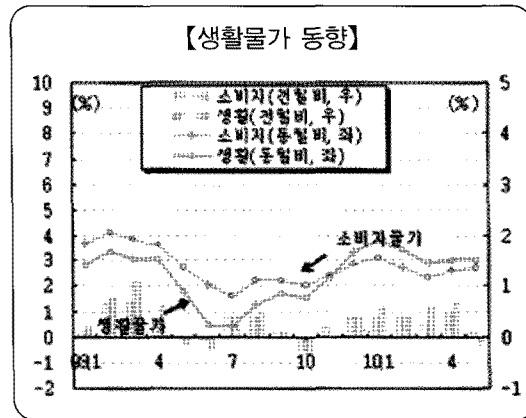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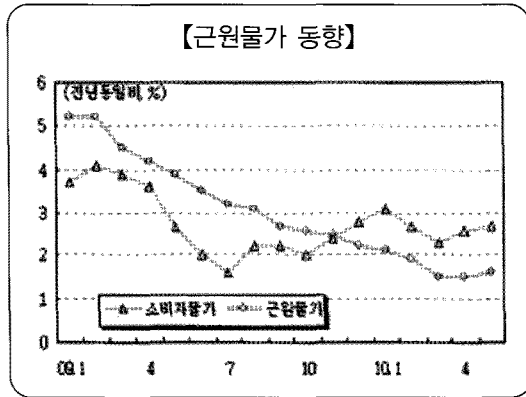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2.0% 하락하고 전년동월비로는 3.0% 상승했다.

한편 재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측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있지만 2%대 안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2-2150-2771

【10.5월 부문별 소비자물가 동향】

구분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석유류	집세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전월비(%)	0.1	△1.8	0.5	0.5	0.2	0.0	0.2
기여도(%p)	0.09	△0.16	0.16	0.03	0.02	0.00	0.06
전년동월비(%)	2.7	4.4	3.8	14.0	1.7	1.4	2.1
기여도(%p)	2.66	0.38	1.17	0.76	0.16	0.22	0.73



OECD “올해 한국경제 5.8% 성장”...1.4%p 올려잡아

“글로벌 금융위기사서 가장 강한 회복세 보인 국가로 지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5.8%로 올려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당초 4.2%에서 4.7%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OECD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5.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터키(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OECD는 특히 한국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사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다. OECD는 올해 재정지출이 감소하겠지만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연간 5.8%, 2011년은 연간

【한국 경제전망(%)】

	2010		2011	
	09. 11월 전망	10. 5월 전망	09. 11월 전망	10. 5월 전망
GDP 성장률	4.4	5.8	4.2	4.7
- 민간소비	2.9	3.8	3.2	4.0
- 총고정자본형성	3.6	6.7	4.9	5.0
- 수출	13.4	11.1	12.9	12.6
(순수출)*	△0.4	△1.0	0.3	0.7
실업률	3.6	3.6	3.4	3.3
소비자물가	2.8	3.0	3.0	3.2
경상수지(對 GDP)	1.3	1.7	1.0	1.6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의 경우 전세계 교역량 회복으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내수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5.1%에서 2010~2011년 2%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업률은 고용 증가로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올해 3.0%, 내년 3.2%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강화 등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했다.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적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 9

위의 수출 국가인 만큼 세계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가계수지 개선에 사용할 경우 소비 등 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4.6%, 내년 4.5%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1.2%p, 0.8%p 상향조정된 수치다.

OECD는 비OECD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OECD 국가들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올해 8.5%에서 내년 8.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02-2150-2736

【OECD국가의 경제전망(%)】

	2010		2011	
	09. 11월	10. 5월	09. 11월	10. 5월
세계 GDP 성장률	3.4	4.6	3.7	4.5
- OECD 국가	1.9	2.7	2.5	2.8
- 미국	2.5	3.2	2.8	3.2
- 유로	0.9	1.2	1.7	1.8
- 일본	1.8	3.0	2.0	2.0
OECD 수출량 갭	△4.1	△3.8	△3.2	△2.6
OECD 실업률	9.0	8.5	8.8	8.2
OECD 물가상승률*	1.3	1.6	1.2	1.3
OECD 재정수지(對GDP)	△8.3	△7.8	△7.6	△6.7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한국, 국가경쟁력 23위..일본 누르고 역대 최고 순위 기록

“IMD 세계경쟁력 평가 경제위기 속
경제성과.정부효율성 인정”

한국이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을 누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19일 발표한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1997년 조사 이후 최고 기록이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일곱 번째다. 반면 일본은 전년도보다 10단계나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8년 31위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여 2009년 27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상승한 셈이다.

IMD는 특히 한국의 경제성과 부분에서 후하게 점수줬다. 2009년도에는 45위로 평가했으나, 올해는 국내경제(27→10위)와 국제무역(37→22위)이 개선된 점을 들어 21위로 24단계를 올렸다. 아울러 정부효율성 부문도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6위로 평가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IMD가 인정한 셈이다.

유럽발 재정위기 공포감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IMD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 정부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정부부채가 GDP대비 33% 수준(2009년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do not have a dept problem”)했으나,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되어야 정부부채를 6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IMD 발표 기준)】

	04	05	06	07	08	09	10
- 국가 경쟁력 순위	31	27	32	29	31	27	23
*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순위	11	9	11	10	11	10	8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순위	14	10	14	12	13	11	9
* G20 국가 중 순위						8	7

* 97년(30위) → 99년(41위) → 01년(29위) → 03년(32위)

【주요 재정적자 과다국의 재정적자 감축(GDP대비 60%) 달성 년도】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그리스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2084년	2060년	2037년	2033년	2031년	2028년	2028년	2028년	2021년

한편, 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가 뒤를 이었다.

(23→8위), 말레이시아(18→10위), 중국(20→18위)이 상승한 반면, 일본(17→27위), 인도(30→31위) 등이 하락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 02-2150-2873

아시아에서는 한국 외에 싱가포르(3→1위), 대만

【201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10순위	국가	(09)	변동	10순위	국가	(09)	변동
1	싱가포르	3	(↑ 2)	31	인도	30	(↓ 1)
2	홍콩	2	(-)	32	폴란드	44	(↑ 12)
3	미국	1	(↓ 2)	33	카자흐스탄	36	(↑ 3)
4	스위스	4	(-)	34	에스토니아	35	(↑ 1)
5	호주	7	(↑ 2)	35	인도네시아	42	(↑ 7)
6	스웨덴	6	(-)	36	스페인	39	(↑ 3)
7	캐나다	8	(↑ 1)	37	포르투갈	34	(↓ 3)
8	대만	23	(↑ 15)	38	브라질	40	(↑ 2)
9	노르웨이	11	(↑ 2)	39	필리핀	43	(↑ 4)
10	말레이시아	18	(↑ 8)	40	이탈리아	50	(↑ 10)
11	룩셈부르크	12	(↑ 1)	41	페루	37	(↓ 4)
12	네덜란드	10	(↓ 2)	42	헝가리	45	(↑ 3)
13	덴마크	5	(↓ 8)	43	리투아니아	31	(↓ 12)
14	오스트리아	16	(↑ 2)	44	남아프리카공화국	48	(↑ 4)
15	카타르	14	(↓ 1)	45	콜롬비아	51	(↑ 6)
16	독일	13	(↓ 3)	46	그리스	52	(↑ 6)
17	이스라엘	24	(↑ 7)	47	멕시코	46	(↓ 1)
18	중국	20	(↑ 2)	48	터키	47	(↓ 1)
19	핀란드	9	(↓ 10)	49	슬로바키아	33	(↓ 16)
20	뉴질랜드	15	(↓ 5)	50	요르단	41	(↓ 9)
21	아일랜드	19	(↓ 2)	51	러시아	49	(↓ 2)
22	영국	21	(↓ 1)	52	슬로베니아	32	(↓ 20)
23	한국	27	(↑ 4)	53	불가리아	38	(↓ 15)
24	프랑스	28	(↑ 4)	54	루마니아	54	(-)
25	벨기에	22	(↓ 3)	55	아르헨티나	55	(-)
26	태국	26	(-)	56	크로아티아	53	(↓ 3)
27	일본	17	(↓ 10)	57	우크라이나	56	(↓ 1)
28	칠레	25	(↓ 3)	58	베네수엘라	57	(↓ 1)
29	체코	29	(-)				
30	아이슬란드	-	-				

* '10년 조사에서는 '09년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되어 총 58개국을 조사